



| | | | |
|------|---------------|------|---------------|
| 작성일시 | 2025. 6. 1(일) | 기재일시 | 1987.5. 23(일) |
| 소속 | DBpiaje | 작성자 | 익명의 사나이 |

<지선 신드롬: 뉴로네러티브를 통해 본 자아 형성의 생물학적 구조> - 머리말 -

-부제목 [기억, 정체성, 그리고 시냅스 가소성의 교차점에서]
:

초록(Abstract)

본 논문은 다문화 배경을 가진 지선이라는 학생의 행동 패턴과 가정사를 중심으로, 그의 자아 형성과 사회적 관계망 내에서 나타나는 복합적 심리·사회적 현상을 뉴로네러티브(Neurorarrative) 관점에서 분석한다. 지선은 필리핀 출신 어머니와 장애 및 가정폭력 문제를 가진 아버지 사이에서 자라며, 내·외적 갈등과 정체성 혼란을 경험한다. 특히, 그의 독특한 언어 사용과 대인관계, 보호받는 위치 및 자아 정체성 주장은 복잡한 신경·심리 기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지선의 사례를 통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생물학적 자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명한다.

1. 서론

현대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과 행동 양상은 다층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가족 내의 갈등 구조, 사회적 지지망, 그리고 개인의 내러티브가 신경학적 구조와 상호작용하며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은 복잡하다. 본 연구는 지선이라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그가 겪는 가정환경과 대인관계, 언어적 특성, 정체성 인식 등을 종합하여 신경 내러티브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2. 연구 대상 및 배경

2.1 대상 인물: 지선

지선은 필리핀 출신 어머니와 가정폭력 및 장애를 겪는 아버지 사이에서 성장한 학생이다. 그의 어머니는 업소에서 뛰어난 기술을 익혀 가족을 부양하는 반면, 아버지는 신체적 장애와 폭력적 성향, 무직 상태로 가족 내 긴장과 갈등을 유발한다. 이러한 가정환경은 지선의 정서 및 행동 패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2.2 사회적 정체성과 언어 사용

지선은 자신을 한국인으로 강하게 주장하며, 한국 사회 내에서의 소속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그의 다문화적 배경과 상충하는 정체성 혼란의 한 형태로 해석된다. 또한 그는 김치를 극도로 싫어하는 등 문화적 이질감을 드러낸다.

3. 행동 패턴과 대인관계

3.1 학교 내 보호 및 인간의자 행동

지선은 학교에서 특정 인물에게 보호받는 위치에 있으며, 그를 보호하는 친구에게 ‘인간의자’를 제공하는 독특한 상호작용 양상을 보인다. 해당 행동에서 그는 웃음을 보이며 긍정적 감정을 표출하는데, 이는 복잡한 정서적 메커니즘과 사회적 유대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3.2 친구 관계의 다층성

지선의 대인관계는 복잡하며, 코드네임 D.H는 지선을 은밀히 흠모하고, 지선은 몽골 출신 초노도 전술 병기 H.S의 베스트 프렌드이면서 H.S는 D.H를 사모하는 삼각관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지선은 사실 Y.S.J를 매우 흠모하는 관계적 역학을 보인다. 이러한 삼각관계와 정서적 교류는 지선의 내러티브와 정체성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4.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본 자아 형성

뉴로네러티브 이론은 개인이 경험을 내러티브 형태로 조직하면서 신경가소성 및 기억 체계와 상호작용하여 자아를 구성한다고 본다. 지선의 행동 및 언어 특성, 그리고 복잡한 정서적 네트워크는 시냅스 가소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심리적 자극의 결과로 해석된다.

5. 결론 및 시사점

지선의 사례는 다문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정체성 혼란, 가족 내 갈등,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한다. 뉴로네러티브를 통한 분석은 개인의 생물학적 자아 형성 과정에 사회·심리적 요인이 깊이 개입됨을 보여주며, 향후 다문화 청소년 지원 정책 및 심리치료적 접근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